

그린산업 (Overweight)

독일 그린산업에 대규모 재정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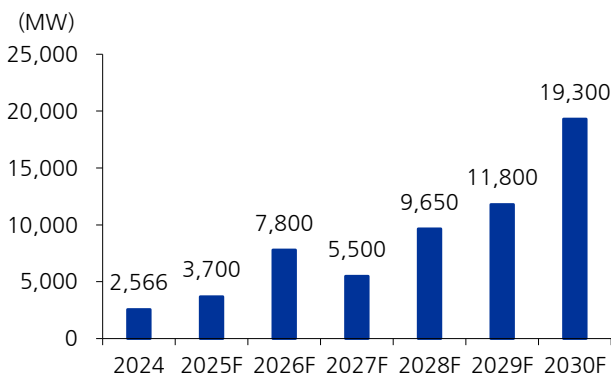
그린산업 포인트

독일 신임정부의 재정 확장정책으로 총 5 천억유로의 인프라에 대해 재정투자가 확정. 이 중 1 천억유로가 그린산업에 투자. 배터리, 풍력, 전력 인프라 관련 국내 기업들의 수혜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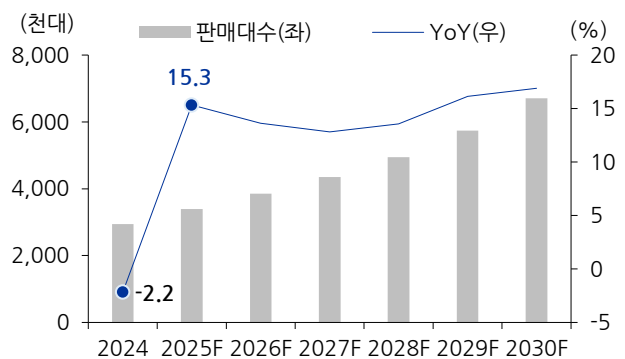
- 독일 신임 연정, 재정 확장 정책 입법화 위해 녹색당과 타협안 합의
- 신규 부채 한도(GDP의 0.35%)에 대한 수정 입법 통해 5천억유로 재정투입
- 4천억유로는 전력망, 도로 등 인프라 투자, 1천억유로는 기후 전환 산업에 투자
- 2045년 탄소중립을 헌법으로 명문화해서 의회 2/3가 동의해야 수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
- 리먼 사태 이후 독일의 균형 재정 정책이 EU의 그린 산업에 대한 정책 변동성 유발했으나 기조 바뀐 것
- 전기차/배터리, 풍력, 수소 등 EU가 우선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증가할 것
-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풍력, 전력 인프라 업체들 수혜

유럽 해상풍력 설치량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유럽 전기차 판매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독일 확장 재정 정책
유턴 의미 커

독일의 신임 연정인 CDU/CSU 와 SPD 는 기존의 균형 재정을 확장 정책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고 부채 제한(Debt Brake) 법을 수정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해왔다. 전체 의석수의 2/3 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녹색당 또는 AfD 가 찬성을 해야 했다. AfD는 확장정책을 반대했고, 극우와는 정책 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어, 연정은 녹색당과의 협의에 집중해왔다. 따라서 녹색당은 이번 협상으로 자신들이 요구한 대부분을 성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확장 재정정책으로의 선회는 EU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주요 핵심 산업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 운용을 할 것이다.

그린산업 전체에 수혜

이번 협상안의 큰 틀은 전체 5 천억유로를 인프라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중 1 천억유로가 기후 전환 산업에 신규 투자된다. 또한 2045 년 탄소중립을 헌법에 명문화한다. 향후 의회 집권 세력이 바뀌더라도 2/3 의 동의를 있어야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독일과 예산의 일부를 공유하는 여타 EU 국가들까지 정책이 수정되면 산업 육성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독일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부활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 지원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동안 주로 규제 완화로만 도와주던 재생에너지도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와 국가 입찰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수소산업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K 배터리, 해상풍력, 전력
인프라 관련주 긍정적

유럽 전기차 시장의 둔화는 독일의 보조금 중단부터 시작되었다. 코로나 팬드로부터 전용하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지급이 중단되었다. 균형 재정 정책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승인 받기 어려웠다. 따라서 확장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직접 지원이 가능케 됨을 의미한다. 국내의 배터리, 풍력 기자재,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4.12.31 기준)